

석판고려대장경 한국불교의 세계화 견인

대한불교조계종 원로의원 월탄스님

慶 繼 法 語

9만 고려대장경 석판본 조성
에 즈음하여-원인원려(元因源慮)가
면무처불통(面無處不通)이라,
말이 끊어지고 생각이 끊어지면
놓치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8만 고려대장경을 석판에 새겨서
석장법으로든 논할 수 없고 어떤
한 말로도 논할 수 없는 것이
원인입니다.

원인원려(元因源慮)가
면무처불통(面無處不通)이라,
말이 끊어지고 생각이 끊어지면
놓치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8만 고려대장경을 석판에 새겨서
석장법으로든 논할 수 없고 어떤
한 말로도 논할 수 없는 것이
원인입니다.



아서 삼계(三界)의 중생을 영원히
제도(濟度)할 세계생생(世世生生)
살근대(上根大根)의 본말(本末)은
닐 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3천년의 불주해(佛祖海)를
의성령(靈聖)이 깃들지 않고서는
만고(萬古)에 빛날 성지가 될 수
없습니다. 천의(天意)는 저버릴 수
없습니다. 이러한 서기(瑞氣)가
신상길(神上길) 이사장님을 인도(引)하
였고 그 큰 신심(信心)이 세계(世)에
전무후무한 석장경을 조성(造)하
도록(助)한 것입니다. 사
복(佛)원(源)을 한 것입니다. 사
람과 하늘로 하여금 함께 증명(證
明)하게 하는 시련(試練)과 인연(因
緣)은 것입니다. 이 일(事)은 천(天)이
늘(늘)히 그 모양(模樣)을 덮(덮)지
않(않)고

산천이 늘(늘)히 그 빛을 감추지
못 할 것입니다. 과거(過去) 앞서(先)여래(如來)는 보
살행(佛行)을 뒤를 때 12살(上)을
넋(念)고 아미타(阿彌陀) 부처님(佛)은 범(凡)장(莊)거
주(住) 때 48원(願)을 내(內)었으며 석가(釋)여래(如來)
부처님(佛)은 보배(寶)범(範)지(智)寶(寶)法(法)에
5백(百) 사원(師)을 내(內)었습니다. 이 모든
願(願)은 다 널리 배(配)풀어 중생(衆生)을 건
지는 큰(大) 서원(誓願)이었습니다.
오늘의 석장경(石藏經) 조성(造)사의 큰(大)
사원(誓願)은 부처님(佛)의 가르침(教)을
전(傳)하여 미래(未來) 세(世)의 중생(衆生)들을 건
지(救)기 위한(爲) 발원(發願)입니다. 중생(衆生)의 사
원(誓願)이 부처님(佛)의 사원(誓願)입니다.
이제(今) 신상길(神上길) 이사장님(理事長)을 비롯(率)한
이 시대(時代)를 살아가는 우리(我) 불자(佛)들
은 이 원(願)력(力) 불사(佛)가 어길(違) 수 없는
시대(時代) 사명(使命)을 주(授)지(知)
하고(知)고 모두(皆) 마음(心)속(中)에서 우리(我)나
오는 신심(信心)으로(以) 동행(同行)하
야 할(當) 것입니다.

대장경조사위원회 수희동참

장주불교신도회 회장 이창구

인사말씀
준경하는 큰스님,
그리고 지역(地)기반(基)정
념(念)을 비롯한 원근(遠近)을
불문(不問)하고 원림(源林)에
귀(歸)반(反), 장주(莊)불교(佛)신도(徒)
여러분(諸君), 오늘(今日) 이 행
사에 동참(同參)하여 주시
어(祈) 전심으로 감사(感)하
습니다. 대(大)소(小)의 공사(公事)를
불문(不問)하고 시간을 할
애(愛)하여 주신 마음(心)에
다시 한 번(再) 깊은 감
사를 드립니다.



대장경조사 위대한 민족지산

사, 전사련 총재 각성스님



귀(貴)의 산보(山步)함은
부처님(佛)의 기(奇)가
충만(充)한 나(我)가
운(運)상(相)과 운(運)공(功)
의 복(福)이 증(增)진(進)
하(下)는 발원(發願)에
경(敬)의 회(回)복(復)과 이(以)
를 거(거)쳐는 모든(모든) 일
소(小)원(願)이
기(奇)원(願)드립니다.

불안(不安)하고자 하는 대(大)작(作)불사(佛事)를 발원(發願)하여 5년(年)여 동(同)안
진행(進)해 왔(來)음에도 제(第)회(回)신도(徒)회가 오늘(今日)에야 여러(多)분(分)들을
모(募)시기(期) 되었(되)었음을 깊이 사(謝)과(과)드립니다. 주(主)지(知)하시(는) 바
와 같이 오늘(今日)은 석장(石藏)경(經) 조성(造)성의 첫(第) 단계(階)라 할(可) 수(不)는
석(石)판(板) 각(各)자(者) 즉(即) 석(石)판(板)에 글(字)자를 새(新)겨 넣(入)는 과정(程)을 참(參)관
하(하)시고, 지금(今)까지의 과정(程)과, 이후(後) 진행(進)될(將) 전(全) 과정(程)에
대(대)하여 심(心)평(平)을 들(聽)으실(望) 것(望)입니다. 오늘(今日)은 석(石)판(板) 들(들)을 실(實)이
대(대)작(作) 불사(佛事)는 정(正)상(相)적(的)으로 진행(進)될(將) 때(時) 향후(後) 20년(年)에서 25
년(年)의 시간(時)을 요(要)하는 것이며, 소요(費) 경비(費) 또한(또한) 상상(想)을
초(超)월(越)한(한) 일(事)입니다. 이(此) 불사(佛事)가 원(源)인(因)인(인) 성(成)취(취)될(將) 수(不)는
도(道)록(錄) 이(此) 불사(佛事)를 발원(發願)하고 진(進)력(力)을 다(盡) 하고(고) 있는 신(新)신(新)상(相)길
제(第)단(段) 이사장(理事長)님께(께) 환(환)한(한) 격(格)려(려)의 반(反)수를 보(報)반(返)시(하)는
제(第)세계(界)적으로 전(全)무(無)후(後)무(無)한(한) 이(此) 대(大)작(作)불사(佛事)의 성(成)공(功)은 우리(我)
리(里) 산(山)주(主)의 지(智)를 뉘(紐)어 넣어(어) 국가(家)적(的) 대(大)업(業)이고 세(世)계(界)적인
문(文)화(化)유산(産)이 될(將) 것(望)입니다. 이(此) 지(智)에 동(同)참(參)하시(는) 모든(모든) 어(어)른
분(分)께서 마음(心)속(中)에 주(主)신(神) 것(望)을 호(呼)소(訴)합니다. 이(此) 불사(佛事)는 한국(韓)
국(國) 불(佛)교(教)의 위(威)상을 드(드)높(高)여 주(主)고, 모든(모든) 이(此)들(들)에게 신(新)심을 고(高)쳐
시(示)켜 드(드)릴(將) 것(望)입니다. 이(此) 대(大)작(作)불사(佛事)는 부(佛)처(處)님의 기(奇)가
분(分)명(明)할(將) 것(望)입니다. 감(感)사(謝)합니다.

준경하는 큰스님 그리고 지역(地)기반(基)정(定)된(定) 또한(또한) 전국(全)불자(佛)님(諸)
제(第)단(段)법인(法)인(인) 고려(高麗)대(大)장(藏)경(經)진흥(興)원(院)유(有)지(知)재(在)단(段)에서는 세계(世)계(界) 최(最)초(初)로
“고려(高麗)대(大)장(藏)경(經) 석(石)판(板) 및 석(石)판(板)본(本) 경(經)관(官)불(佛)사(事)”를 진(進)행(行)하
고(고) 있습니다. 이(此)같은(같은) 고려(高麗)대(大)장(藏)경(經) 석(石)판(板) 조성(造)성은 한국(韓)불(佛)교(教)
역사(史)를 새(新)롭게 각(各)인(人)시키고 또한(또한) 장(莊)주(主)시의 지(智)원(源)이며 지(智)
역(역)경(景)제(制) 성장(成)장(藏)역(역)출(出)과 인(人)기(奇) 권(權)광(光)성(成)품(品)으로 고(高)부(夫)카(加)키(키)
를 생(生)성(成)하는 일(事)이(의) 조(趙)의 국(國)내(內)회(回)고(고) 대(大)작(作)불사(佛事)라고 생(生)
각(各)합니다. 준(准)경(敬)하는 장(莊)주(主)시(時)민(民)과 전(全)국(國)불(佛)자(者)님(諸) 사(師)범(範)법(法)인(인)
전(全)국(國)사(師)실(實)시(時)인(人)대(大)체(體)총(總)연(演)합(合)회(會)는 장(莊)주(主)시(時)불(佛)교(教) 신(新)도(道)화(化)의 대(大)불(佛)어(어)
전(全)국(國)불(佛)자(者)님(諸)과 함께(一) 고려(高麗)대(大)장(藏)경(經)의 제(第)단(段) 위(偉)대한(大)한(한) 기(奇)적(的)
를 문(文)화(化)콘텐츠(컨텐츠)로 개(改)변(變)하고자(欲) 합니다. 이(此) 지(智) 넘어(越)어(어)야(야) 할(當) 별(別)
이(의) 많(多)다고 생(生)각(各)하(하)기(는) 보(보)다(는) 마(마)한(한) 벽(壁)을 문(文)으로(로) 변(變)화(化)하(하)여
수(수) 있는(는) 지(智)간(間)으로(로) “고려(高麗)대(大)장(藏)경(經) 석(石)판(板) 각(各)자(者) 시(時)현(現)
및(及) 조성(造)성(成)명(名)화(化)”를 개(改)화(化)하(하)고(고) 부(佛)다(다) 수(수)희(熙)동(洞)참(參)하시(는) 어(어)려(려)한(한) 사(事)현(現)
은(은) 격(格)려(려)와 성(成)원(願) 부(佛)탁(托)드립니다.

천년의 선비 상주에서 금강변야로 나투다

지난 27일 세계최초 석판본 각자 시현식 열려 [재]고려대장경진흥원, 상주시불교신도회 공동 추진

구(求)모(求)게 32호(號)로 2007년 유(有)네(네)스
고(高) 세계(界)기(奇) 특(特)유(有)산(山)에 등(登)재(在)된(定) 팔(八)
만(萬)대(代)장(藏)경(經) (고(高)려(烈)대(代)장(藏)경(經))이 천(天)
년(年) 세월(世)의 침(沈)묵(默)을 깨(깨)고 경(經)상(相)부(부)도
상(相)으로 다시 태(태)어나(나) 한(한)국(國)불(佛)교(教)
사(師)상(相) 유(有)태(태)가 없는(는) 일(事)이 현(現)실(實)화(化)
되고(고) 있어(어) 전(全)세계(界)가 주(主)목(目)하고(고)
있다(는)다. 역사(史)적인(的) 석(石)판(板)대(代)장(藏)경(經) 대(大)
제(第)단(段)법인(法)인(인) 상(相)주(主)시(時)민(民)회(會)는 비(非)특(特)
한(한) 이(此) 신(新)신(新)상(相)길(길) (75) 이사장(理事長)은
“고려(高麗)대(大)장(藏)경(經) 석(石)판(板)본(本) 및(及) 석(石)보(寶)존(尊)
시(時)관(官) 건(建)립(立)불(佛)사는 한(韓)국(國)불(佛)교(教)와
세계(世)계(界)종(宗)교(교)의 역사(史)를 새(新)롭게(로) 변(變)
화(化)시키(키)는 패(覇)리(力)다(다)임(임)이 바(바)빠(빠)
게(게)기(奇)가 될(將) 것(望)이다”면서 “전(全)국(國)
민(民)과 대(대)덕(德)큰(큰)스님(스님) 그리고(그리고) 상(上)주(主)
시(時)민(民)들의 관심(關)심(心)과 뜨(뜨)거운(은) 성(成)원(願)
이 함께(一) 할(當) 때(時) 더욱(더)우(우) 그(그) 기(奇)적(的)이(의)
빛(光)나는(는) 계(契)기(機)가 될(將) 것(望)이다”고 말(말)
했다(는)다.

고려(高麗)대(大)장(藏)경(經) 석(石)판(板)본(本) 대(大)작(作)불(佛)사는
지난(去)년(年) 2008년 1월(月) 부(佛)터(터)고(고)려(烈)대(代)
장(藏)경(經) 연(連)구(求)소(所) 이사장(理事長)인(인) 종(宗)림(林)스
님(스님)과 대(大)한(韓)불(佛)교(教)조(趙)계(契)종(宗)원(源)모(母)의(의)원(院)
원(院)탄(檀)스님(스님)등(등) 학(學)계(界), 교(教)계(界), 석(石)회(會)들(들)
의 활(活)적(적)한(한) 검토(檢)토(토)와 수(手)립(立)하고(고) 추(추)
진(進)위(位)원(院)회(會)를 구(求)성(成)한(한) 글(字) 데이(代)터(터)
베이스(基)스(스)를 구(求)축(築)고(고)려(烈)대(代)장(藏)경(經) 석(石)
판(板)본(本) 및(及) 석(石)보(寶)존(尊)시(時)민(民)회(會)는 비(非)특(特)
한(한) 이(此) 신(新)신(新)상(相)길(길) (75) 이사장(理事長)은
“고려(高麗)대(大)장(藏)경(經) 석(石)판(板)본(本) 및(及) 석(石)보(寶)존(尊)
시(時)관(官) 건(建)립(立)불(佛)사는 한(韓)국(國)불(佛)교(교)와
세계(世)계(界)종(宗)교(교)의 역사(史)를 새(新)롭게(로) 변(變)
화(化)시키(키)는 패(覇)리(力)다(다)임(임)이 바(바)빠(빠)
게(게)기(奇)가 될(將) 것(望)이다”면서 “전(全)국(國)
민(民)과 대(대)덕(德)큰(큰)스님(스님) 그리고(그리고) 상(上)주(主)
시(時)민(民)들의 관심(關)심(心)과 뜨(뜨)거운(은) 성(成)원(願)
이 함께(一) 할(當) 때(時) 더욱(더)우(우) 그(그) 기(奇)적(的)이(의)
빛(光)나는(는) 계(契)기(機)가 될(將) 것(望)이다”고 말(말)
했다(는)다.

고려(高麗)대(大)장(藏)경(經) 석(石)판(板)본(本) 대(大)작(作)불(佛)사는
지난(去)년(年) 2008년 1월(月) 부(佛)터(터)고(고)려(烈)대(代)
장(藏)경(經) 연(連)구(求)소(所) 이사장(理事長)인(인) 종(宗)림(林)스
님(스님)과 대(大)한(韓)불(佛)교(教)조(趙)계(契)종(宗)원(源)모(母)의(의)원(院)
원(院)탄(檀)스님(스님)등(등) 학(學)계(界), 교(教)계(界), 석(石)회(會)들(들)
의 활(活)적(적)한(한) 검토(檢)토(토)와 수(手)립(立)하고(고) 추(추)
진(進)위(位)원(院)회(會)를 구(求)성(成)한(한) 글(字) 데이(代)터(터)
베이스(基)스(스)를 구(求)축(築)고(고)려(烈)대(代)장(藏)경(經) 석(石)
판(板)본(本) 및(及) 석(石)보(寶)존(尊)시(時)민(民)회(會)는 비(非)특(特)
한(한) 이(此) 신(新)신(新)상(相)길(길) (75) 이사장(理事長)은
“고려(高麗)대(大)장(藏)경(經) 석(石)판(板)본(本) 및(及) 석(石)보(寶)존(尊)
시(時)관(官) 건(建)립(立)불(佛)사는 한(韓)국(國)불(佛)교(교)와
세계(世)계(界)종(宗)교(교)의 역사(史)를 새(新)롭게(로) 변(變)
화(化)시키(키)는 패(覇)리(力)다(다)임(임)이 바(바)빠(빠)
게(게)기(奇)가 될(將) 것(望)이다”면서 “전(全)국(國)
민(民)과 대(대)덕(德)큰(큰)스님(스님) 그리고(그리고) 상(上)주(主)
시(時)민(民)들의 관심(關)심(心)과 뜨(뜨)거운(은) 성(成)원(願)
이 함께(一) 할(當) 때(時) 더욱(더)우(우) 그(그) 기(奇)적(的)이(의)
빛(光)나는(는) 계(契)기(機)가 될(將) 것(望)이다”고 말(말)
했다(는)다.

고려(高麗)대(大)장(藏)경(經) 석(石)판(板)본(本) 대(大)작(作)불(佛)사는
지난(去)년(年) 2008년 1월(月) 부(佛)터(터)고(고)려(烈)대(代)
장(藏)경(經) 연(連)구(求)소(所) 이사장(理事長)인(인) 종(宗)림(林)스
님(스님)과 대(大)한(韓)불(佛)교(教)조(趙)계(契)종(宗)원(源)모(母)의(의)원(院)
원(院)탄(檀)스님(스님)등(등) 학(學)계(界), 교(教)계(界), 석(石)회(會)들(들)
의 활(活)적(적)한(한) 검토(檢)토(토)와 수(手)립(立)하고(고) 추(추)
진(進)위(位)원(院)회(會)를 구(求)성(成)한(한) 글(字) 데이(代)터(터)
베이스(基)스(스)를 구(求)축(築)고(고)려(烈)대(代)장(藏)경(經) 석(石)
판(板)본(本) 및(及) 석(石)보(寶)존(尊)시(時)민(民)회(會)는 비(非)특(特)
한(한) 이(此) 신(新)신(新)상(相)길(길) (75) 이사장(理事長)은
“고려(高麗)대(大)장(藏)경(經) 석(石)판(板)본(本) 및(及) 석(石)보(寶)존(尊)
시(時)관(官) 건(建)립(立)불(佛)사는 한(韓)국(國)불(佛)교(교)와
세계(世)계(界)종(宗)교(교)의 역사(史)를 새(新)롭게(로) 변(變)
화(化)시키(키)는 패(覇)리(力)다(다)임(임)이 바(바)빠(빠)
게(게)기(奇)가 될(將) 것(望)이다”면서 “전(全)국(國)
민(民)과 대(대)덕(德)큰(큰)스님(스님) 그리고(그리고) 상(上)주(主)
시(時)민(民)들의 관심(關)심(心)과 뜨(뜨)거운(은) 성(成)원(願)
이 함께(一) 할(當) 때(時) 더욱(더)우(우) 그(그) 기(奇)적(的)이(의)
빛(光)나는(는) 계(契)기(機)가 될(將) 것(望)이다”고 말(말)
했다(는)다.

고려(高麗)대(大)장(藏)경(經) 석(石)판(板)본(本) 대(大)작(作)불(佛)사는
지난(去)년(年) 2008년 1월(月) 부(佛)터(터)고(고)려(烈)대(代)
장(藏)경(經) 연(連)구(求)소(所) 이사장(理事長)인(인) 종(宗)림(林)스
님(스님)과 대(大)한(韓)불(佛)교(教)조(趙)계(契)종(宗)원(源)모(母)의(의)원(院)
원(院)탄(檀)스님(스님)등(등) 학(學)계(界), 교(教)계(界), 석(石)회(會)들(들)
의 활(活)적(적)한(한) 검토(檢)토(토)와 수(手)립(立)하고(고) 추(추)
진(進)위(位)원(院)회(會)를 구(求)성(成)한(한) 글(字) 데이(代)터(터)
베이스(基)스(스)를 구(求)축(築)고(고)려(烈)대(代)장(藏)경(經) 석(石)
판(板)본(本) 및(及) 석(石)보(寶)존(尊)시(時)민(民)회(會)는 비(非)특(特)
한(한) 이(此) 신(新)신(新)상(相)길(길) (75) 이사장(理事長)은
“고려(高麗)대(大)장(藏)경(經) 석(石)판(板)본(本) 및(及) 석(石)보(寶)존(尊)
시(時)관(官) 건(建)립(立)불(佛)사는 한(韓)국(國)불(佛)교(교)와
세계(世)계(界)종(宗)교(교)의 역사(史)를 새(新)롭게(로) 변(變)
화(化)시키(키)는 패(覇)리(力)다(다)임(임)이 바(바)빠(빠)
게(게)기(奇)가 될(將) 것(望)이다”면서 “전(全)국(國)
민(民)과 대(대)덕(德)큰(큰)스님(스님) 그리고(그리고) 상(上)주(主)
시(時)민(民)들의 관심(關)심(心)과 뜨(뜨)거운(은) 성(成)원(願)
이 함께(一) 할(當) 때(時) 더욱(더)우(우) 그(그) 기(奇)적(的)이(의)
빛(光)나는(는) 계(契)기(機)가 될(將) 것(望)이다”고 말(말)
했다(는)다.



2010년 4월 조성하여 경내에 봉안한 석가모니 부처님 (높이 4.5m)



고려대장경 석판본 각자 시현식 및 조성설명회에 전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의 연설 모습과 시·전사련 집행부 스님들과 상주시민들이 대거 동참 도거운 관심을 표명했다.



관게기관 및 전국 불교종단 대표자님들이 보내온 각자시현 명축 화환